

영암교육청 '영암교육 2020' 설명회

교원·학부모·지자체 관계자 대상

4차 산업 혁명 시대 전인차 인재 육성 중점

영암교육청은 8일 시청각실에서 관내 교원, 학부모, 지자체 관계자, 지역민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영암교육 2020' 설명회를 개최했다.

장경미 교육지원과장은 '어린 것들 잇몸에 돌아오는 고운 이빨을 보듯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는 '설날 아침에' 시낭송으로 문을 열며, 격변의 교육현장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노래해야 하는 혁신교육에 대하여 무관심 속에서 관례적으로 이어져 온 익숙한 것과의 단절로부터 혁신은 시작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영암교육 2020' 책자의 표지 그림에 대하여, 한 때 폐교위기에 몰렸던 관내에서 가장 작은 학교인 초·중 통합학교 영암금정중 2학년 학생의 전라남도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수행 작품인 '뿔방울 속 세상'이라는 사진을 선정, 게재한 취지를 설명하며, '가장 작은 학교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을 끌어내는 가장 큰 교육'을 한 교직원들의 열정을 치하하였다.

아울러 민식이법 통과에 따른 스쿨존 옐로카펫 설치 등에 대하여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

적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해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해외수업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던 관내 특수학교에 대한 대안찾기 노력의 성과로 올해 해외프로젝트는 특수학교 학생들도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며 동등한 출발선과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상상과 공존의 특수교육을 약속하였다.

2020년도 영암교육정책의 방향은 전남교육정책과 교육감 공약사업 등을 근간으로 전년도에 실천했던 영암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영암교육참여위원회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모두가 소중한 혁신영암교육'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AI와 함께 살아갈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위한 5대 교육지표와 2대 역점과제, 특색교육 1개로 구성하였다.

삶의 주인으로 함께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강화,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영암혁신교육지구 활성화를 역점과제로 추진하여,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등의 학생자치활동 확대, 참여하는 민주시민, 교복입은 민주시민'



교육 추진, 마을의 청년과 학생들의 연대로 '마을문화 이어가기'가 학교 현장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색교육인 '월출의 기를 심는 영암교육'은 지역의 독립운동가인 남산 김준연선생 일대기와 마한문화역사유적지 탐구, 영암 영보만세 사건을 비롯한 4.10만세 복원 등 새롭게 찾는 내고장 역사 발굴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지역중심 프로그램으로서 영암향교와 함께 하는 원인학당, 영암가야금산조계승교육, 미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예술교육 등을 집중 추진하게 된다.

이날 영암교육설명회에 앞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함께하는 마을교육' 특강을 한 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강사로 나선 동탄마을을 학교 경영호 대표는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을 주제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학교, 학부모, 지역공동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해 10여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형적 사례를 안내함으로써 다양한 관점과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전라남도교육청 정덕원 교육복지과장은 영암교육설명회 자리에 직접 참석하여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안에 대한 취지 안내와 함께 질의응답 등 학교 현장의견 청취 시간도 가졌다.

나임 교육장은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교육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을 때 영암교육은 빛을 발할 수 있다."며, "영암교육의 정책 하나하나가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행복한 성취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암교육가족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영암=조대호 기자

고흥군,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 실시

고흥교육청은 세계 영어권의 문화 체험을 통해 글로벌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하도록 초등(1.6~1.8)과 중등(1.13.~1.15)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고흥외국어체험센터 겨울 체험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영어를 요리하다, 세계를 맛보다'라는 주제로 실시되고 있는 이번 캠프는 원어민 교사 2명, 한국인 강사 2명이 팀티칭 형태로 운영되며,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게임, 만들기, 팀별 활동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하였으며, 특히 자신의 요리를 만들면서 영어로 말하는 활동은 학생들의 재미와 자신감을 높였으며, 짝공과 팀별 활동을 의미 있게 배치하여 학생들의 협력과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 하려고 하였다.

캠프를 진행하는 김소연(여, 고흥동초 교사)선생님은 "이번 캠프는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다른 학교의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평소 자주 접하기 힘든 원어민 선생님과 직접 마주하며 의사소통할 수도 있는 만남과 소통의 기회이기도 하다"라며 캠프 운영의 목적을 소개했다.

정길주 교육장(고흥교육지원청)은 "영어의 자신감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세계로 한 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더불어 고흥외국어체험센터가 학생 뿐 아니라 앞으로 학부모, 지역민에게도 문을 열어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고민하겠다고 그 포부를 밝혔다.

고흥=한윤섭 기자

광주 금호교육관, 리모델링 후 재개관

광주 금호평생교육관이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지난 1일 재개관했다.

금호평생교육관은 지난 1996년 조성된 이후 지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23년이 경과하면서 시설 등 환경이 노후화돼 불편을 겪어왔다.

금호평생교육관은 열람실 및 자료실의 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 하반기부터 교육관 리모델링 및 실배치 개편 TFI를 운영했다.

금호평생교육관은 도서관 및 평생교육관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 11월12일부터 임시 휴관한 뒤 본격적인 리모델링에 착수했다.

조인호 기자

영광공공도서관,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영광공공도서관은 영광 관내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20년 학교로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2월 12일까지 실시한다.

2019년까지는 매 프로그램 기획시마다 학교로 공문을 발송하여 진행되었던 것을 올해는 1월에 2020년 운영할 독서문화 프로

그램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유치원)를 선정할 후 운영하여 학교 및 공공도서관이 윈-윈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수요조사 대상 프로그램은 자유학년제 우리들의 이야기, 학교로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그림책 읽는 아이, 진로맞춤 고교 교육을 위한 진로체험 특강, 세계 책의 날

기념 올해의 한 책 독서퀴즈, 사서 직업 체험 등 총 6개 프로그램이다.

'우리들의 이야기(가칭)'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년제를 대비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기획하여 연극이라는 결과물을 직접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최종 연극 공연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진로맞춤 체험 특강'은 고3 대상으로 2학기에 진행 예정이다. '그림책 읽는 아이'는 전라남도교육청 사서들이 선정한 Library Start Book을 전문 강사가 유치원으로 직접 찾아가서 책을 읽어 주고 책에 나온 내용 중심으로 독후체험 활동을 진행한다.

영광=서희권 기자

광주창의융합교육원, 과학실험 직무연수

광주창의융합교육원이 2020 동계 교원 대상 '과학실험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9일 광주창의융합교육원에 따르면 '눈으로 배우고 걸으며 익히는 중등 지구과학 교사 직무연수' 등 5개 과정을 오는 25일까지 초·중등교원 1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광주창의융합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직무연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한 주제들로 수업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과정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과학수업 ▲LCD 모니터 해체를 통한 공학기술과 과학원리

이해 ▲3D프린터를 활용한 분자 모델링 ▲VR·AR을 지구과학 수업에 활용하기 등이다.

특히 이번 연수는 연수강사 24명 중 타지역에서 활동하는 외부 강사를 50% 이상(13명) 위촉했다. 타지역 과학수업 우수사례와 광주 과학수업 우수사례를 접목해 과학교사들이 교실에서 과학실험 수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광주창의융합교육원 최승원장은 "과학실험 직무연수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학수업을 학교 현장에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